

한국인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하여 (1)

보람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提供 —

本稿는 선진국가를 指向하는 現代社會 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社會의 實狀을 投影하여 文化國民으로서 지녀야 할 姿勢를 摸索하고자 掲載하는 바이다.

앞으로 本欄을 통해 主人精神·名譽心·道德心과 더불어 국민 主体意識을 考察하고 協同精神·使命感·準法精神을 살펴봄으로써 協同社會의 意味를 되새겨 보며, 愛國心과 反共精神 그리고 統一意志를 照明해 봄으로써 先進祖國의 文化國民의 姿勢를 다짐해 보고 자 한다 編輯者註

사람은 누구나 좀더 나은 생활, 좀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는 인간의 극히 자연스런 본성일 뿐더러, 인류 문명의 역사가 전개된 전 과정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세계사를 수 놓아 온 그때 그때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교육 등 온갖 형태의 사회 제도도 이 보람 있는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집약적 노력의 표현이었다.

제 5 공화국은 그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 사회의 구현, 복지국가의 건설,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란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국가적 의지의 표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이를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국민 가운데는 아직도 대국적인 이익, 국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전의 안일과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가지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폐풍은 불신 풍조이다. 국민들 가운데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 일단 그 의도를 의심하고 전폭적인 협력을 주저하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이기심과 불신 풍조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국민들간의 의식과 행동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 전체와 국민 개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칠 것인가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나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 경제의 지